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자	2021. 04. 14.(수) 10:00
개최장소	대학본부 4층 제2회의실
참석	송춘종 위원장(관리처장), 이형효(기획처장), 김홍주(교무처장), 황진수(학생복지처장), 이윤근(익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민희수(BA스틸 이사), 곡수원(총학생회장), 박종준(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진민준(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불참	없음
배석자	강대영(재무과 과장/간사)

▶ 회의 안건

2020학년도 결산(안) 심사·의결

▶ 회의 내용

-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인원 9명 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함. 본 회의는 2020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 심의·의결을 안건으로 학교 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 2020학년도 결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예/결산 확정 절차 및 2020학년도 재정운영 기본 목표
 - 결산 주요 내용
 - 회계의 구성 및 회계별 결산액 총괄
 - 재정 집행현황
 - 수입·지출 주요 현황
 - 타대학 인건비·적립금·전입금 현황 비교
- 위원장 : 2020학년도 결산(안) 주요사항 설명 끝났으니 질문사항 있는지 요청하다.
- 황진수 위원 : 병원전입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 임상교원 인건비가 매월 13억 정도 지출되고 부속병원전입금이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2020학년도 회계 말에 26억을 더 받았다고 설명하다.
- 황진수 위원 : 앞으로도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하다.
- 이형효 위원 : 기획처에서 계속 협의해서 개선 또는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 황진수 위원 : 학교 재정이 안 좋으니까, 부속병원 전입금을 더 많이 받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임해수련원은 학교 재산인데, 어떻게 처분이 가능했는지 문의하다.
- 간사 : 임해수련원은 학교 교육용 기본 자산인데 운영하다 보니 적자가 나서 매각

간 서 명	송춘종	이형효	김홍주	황진수	곡수원
	민희수	박종준	진민준		

을 함.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대금을 30억 5천 6백만 원 받았음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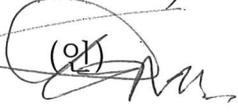
- 김흥주 위원 : 임해수련원 매각 대금이 학교회계로 입금이 된 것인지 문의하다.
- 간사 : 30억 5천 6백만원 대금을 수입 처리하여 적립하였음을 설명하다.
- 민희수 위원 : 임해수련원 대금이 적립이 된 것이 확실한지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고교국고지원금이 어떤 명목 하에서 있었던 것이 감소되었는지 질문하다.
- 간사 : 임해수련원 대금 적립은 확실한 것이고, 고교국고지원금은 입학사정관실 국고 사업이 탈락되어서 감소된 것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 : 입학사정관실에서 주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국고 사업에서 탈락되어 손해가 큼을 설명하다.
- 이형효 위원 : 정식 명칭은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사업 평가 받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탈락되는 바람에 약 7억 8천 정도를 받지 못함.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이 있어서 입학처에서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주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다.
- 황진수 위원 : 학생경비 과목이 22억 감소하였고 그 중에 학생지원비는 4억 3천 감소하였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보완 방안을 요청하다.
- 간사 : 학생경비 금액은 전체가 다 순수하게 학생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아님. 장학금 7억 7천만원 증가하였는데, 교외장학금은 9억 7천 감소하고 교내장학금은 17억 증가하였음. 기타학생경비 중에서는 23억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는 기숙사비가 10억, 혁신사업비가 6억이 감소된 원인임을 설명하다.
- 김흥주 위원 : 많은 사람들은 국고사업들이 탈락하여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9억이 증가한 것인지 문의하다.
- 간사 : 혁신사업비 증가액 23억 중 비대면교육긴급지원 사업비 17억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 김흥주 위원 : 전입금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 증가액이 1억 4천인데, 법정부담전입금 금액은 평가상 비율에 큰 지장 없는지 문의하다.
- 이형효 위원 : 3주기 평가 받을 때,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만점을 상회하고 있어서 문제되지 않음. 1억 4천은 작년 대비 증가액임. 사립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충족시킨 금액임. 부속병원전입금은 임상교원 인건비의 병원 부담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김흥주 위원 : 적립기금 현황을 보면 적립금이 학교 27억, 발전위 4억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 : 적립금 증가 요인에는 임해수련원 매각대금인 30억 5천 6백 적립액 등이 포함되어 40억 6천을 적립하였고, 그 외로 9억 4천 인출하였음. 적립금 발생 이자액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자도 적립하였음을 설명하다.
- 황진수 위원 : 임상교원 인건비에 대한 부속병원 전입액이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부속병원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학교

간 서 명	김성호	박재현	김승기	김성숙	이경숙
	○	○	○	○	○

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내년이라도 임상교원 인건비 부담률을 100% 부속병원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해야함을 주장하다.

- 김흥주 위원 : 타대학 인건비 현황을 보면 등록금/결산액 비율이 조선대 다음으로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높고, 인건비/결산액 비율은 45%로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음. 등록금 외의 수입원 증가해야함. 가장 중요한 것이 부속병원전입금이므로 부속 병원에 100% 부담할 것을 재차 강조하다.
- 위원장 :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기획처에서 주장해왔고, 직원 노조나 교 협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임. 원대 병원도 최근 몇 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다.
- 이형효 위원 : 병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특히 병원 노조에서 도 임상교원인건비의 부담액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부속병원 전입금이 2020학년도에 17억 증가한 계기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 자문시 강력하게 요구한 것임. 이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위원들의 역할을 부탁하다.
- 황진수 위원 : 병원은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됨. 병원이 흑자가 난다면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을 강조하다.
- 김흥주 위원 : 우리 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등록금 인상을 할 수는 없고, 학생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수입처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음. 국고 지원금 수입 확보와 수익사업 확충이 시급히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이윤근 위원 :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만 하지 말고, 학생들을 모집해오는 데도 신경을 써야함. 학생이 있어야 교수님이 필요함. 학생들이 오지 않는 원인이 무엇 일지, 교수님들께서 고교 방문을 한번씩 하고 있는지 궁금함.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얼마나 적은 인원이 미달되느냐가 가장 중요함. 학교 내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들 신경 써서 교체하여 좋은 시설에서 다니기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다.
- 위원장 : 2020학년도 학교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 04. 14.

위원장	송춘종		위 원	이형효	
위 원	김흥주		위 원	황진수	
위 원	이윤근		위 원	민희수	
위 원	곡수원		위 원	박종준	
위 원	진민준				